

이덕일의 '역사의 창'



중국의 역사왜곡 논리

중국 요녕성(遼寧省) 서쪽의 능녕시와 건평현(建平縣)이 교차하는 지점에 '우하량 홍산문화유지(牛河梁紅山文化遺址)'가 있다. '유지'는 '유적(遺蹟)'이라는 뜻이다. 홍산문화는 6000년 전 신석기 유적인데 그 중심이 우하량 유적이다. 홍산문화는 동쪽으로 지금의 요녕성 요하부터 서쪽으로는 하북성, 북쪽으로는 내몽골 시라무렌강과 남쪽으로는 발해까지 걸치는 광범위한 고대문화다. 홍산문화의 중심이 우하량(B.C.3500~B.C.3000) 유적인데 1980년대에 발견되었다. 최초로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제단이 발견되었고 두 눈을 옥으로 만든 여신상도 발견되었다. 무덤과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사당이 갖추어진 단묘총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어 중국을 놀라게 했다. 이 여신상을 현재 중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의 조상(祖上)'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인물이 소병기(蘇秉琦:1909-1999)인데, 그는 국가의 발전 단계를 고국(古國)→방국(方國)→제국(帝國)의 순으로 정리한 이론을 내놓아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소병기가 홍산문화를 중화민족 최초의 문명이자 이미 고국 단계에 들어간 중화문명이라고 정리하면서 홍산문화도 중화문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보기에 억지같지만 소병기가 주장하는 중화민족은 현재의 한족(漢族)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중화민족이라고 할 때는 한족만이 아니라 55개 소수민족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만주의 조선족 또한 중화민족의 범주에 들어간다. 인구 수로 따지면 한족이 91%를 차지하고 55개 소수민족이 9% 정도에 불과하지만 역사영역으로 따지면 인구의 9%인 소수민족의 역사영역도 63% 정도이고 인구의 91%에 달하는 한족의 역사영역도 현재 중국강역의 37%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독립한다고 치면 중국은 현재 강역의 37%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은 국제(國際)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각종 공정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국가공정의 큰 틀은 동이족의 역사를 한족, 곧 화하족(華夏族)의 역사

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공정 중에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이란 것이 있다. 단대란 역사시기를 특정해 끄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의 고대 삼대(三代)라고 불리던 하·상·주는 세 나라가 존속했던 기간을 정리하는 공정이었다. 그전까지 중국 학계에서는 하·상·주 삼대 중에서 상(商)나라까지만 실제 존속했던 왕조로 인정하고 하(夏)나라는 전설상의 왕조로 치부해왔다. 그런데 하·상·주 단대공정의 결과 하(夏)라는 서기전 2070년부터 서기전 160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라고 정리했고, 현재 중국의 각급교과서에서 중국사 교과서에 실어 가르치고 있다. 은(殷)이라고도 불리는 상(商)은 동이족 국가이기 때문에 상나라를 중국 왕조의 시작으로 설정하면 중국 국가공정의 뿌리가 부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이런 각종 국가공정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전과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늘 말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학계는 이 망언에 항의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을 말해준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지속성도 보장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턱뼈에 물혹이 생겼네요...악골 낭종이란



김효준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그 외에도 치아조직을 원인으로 생기는 치성각화낭, 선양치성낭, 치아와 상관없이 위턱뼈의 신경관 부위에 생기는 비구개관낭, 발육 과정에서 생기는 스태프골낭, 특별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단순골낭 등 다양한 원인으로 턱뼈에 물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데 치료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턱뼈에 생기는 물혹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증 등의 증상이 없이 물혹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턱뼈 속의 물혹이 치아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턱뼈를 흡수하여 치아가 흔들리게 만들어 빠야 하는 경우도 있고, 턱뼈 속의 신경관을 압박해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턱뼈의 대부분을 녹이게 될 경우 씹는 힘을 견디지 못해 턱뼈가 부러지는 병적 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턱뼈 물혹의 치료는 대부분 수술적 제거(적출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치료 방법은 물혹의 크기, 위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물혹은 대개 국소마취 하에 외래에서 간단한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치근낭의 경우, 원인이 되는 치아의 근관치료와 함께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합치성낭의 경우는 관련된 매복치의 발치와 함께 물혹을 제거합니다.

크기가 크거나 신경관 등 중요 구조물과 가까운 물혹의 경우, 전신마취 하에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거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장술·감압술

을 통해 물혹의 크기를 줄인 후, 이차적으로 완전한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이는 주변 중요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단순골낭 등 수술적 확인 이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물혹도 있으며, 스태프골낭처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물혹 이외의 양성 종양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치료계획을 세우기 전에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은 있나요? 대다수 턱뼈에 발생하는 물혹은 적절한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물혹, 특히 치성각화낭의 경우 재발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더욱 철저한 수술과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든 턱뼈에 발생하는 물혹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유형의 물혹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물혹인 치근낭과 합치성낭의 경우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치근낭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복치, 특히 사랑니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하면 합치성낭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고

종이팩 재활용률 높이기, 학교가 대안 될 수 있다



오진희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야 하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서 종이팩 수거함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종이팩 배출시, 남은 음료가 상하면서 별다른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로 수거함을 설치했다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함 설치 등 시스템 개선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광주시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시민과 학교 영역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는 우유급식을 하는 곳이 많다 보니 자원순환 실천 중에서도 '종이팩 분리배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많다. 각 학교별로, 학급별로 종이팩을 몇 달씩 모아 인근 동(洞)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재생 화장지로 교환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수거 체계가 미비한 현재의 정책과 제도 속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협의회와 유어스텝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이팩을 구하는 우리 학교 프로젝트'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2023년 1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7개 학교까지 총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 1회 정도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다. 이처럼 미비한 수거 체계 속에서 학교가 종이팩 분리배출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8개 학교지만 점차 광주 전체 학교로 확산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종이팩 재활용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학교와 교

사의 자발적 참여에만 맡겨두지 말고 학교가 좀 더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더 체계적인 교육 모델로서 '종이팩 분리배출'을 할 필요가 있다. 재미적 인 요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이팩 수거함 설치와 전체 학급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 수거차량이 학교를 방문해 깨끗하게 수거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상반기가 지난 지금 아이들의 변화만큼 교사들의 변화도 눈에 띈다. 학교 전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참여하게 된 선생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너무 감격스러워한다. 또한, 개인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학생들과 꾸준히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이 사업의 장점으로 손꼽는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이라도 누군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학교 홀로 실천할 때에는 다르게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교육효과가 좋았다.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학교만큼 좋은 곳이 없다. 맞벌이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에게 아이들은 좋은 스승이 된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배운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종이팩 수거율 14%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 현재처럼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수거를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거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학교가 '종이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社說

공항 3단체장 첫 만남 '원점', 곧 다시 만나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 등 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 3인의 단체장들이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년 만에 처음으로 3자 회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을 확인했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과 부산가덕도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타지역의 신설 공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안 국제공항으로의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가 3자 회담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자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지금도 존재감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공항과 무안 국제공항 등의 문제가 10년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점에서 지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그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3자는 무안국제공항 문제가 서남권 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민·군 통합공

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밝히고 경청했으나 무안군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군에 대한 다양한 이전 인센티브 제공, 산단 조성 및 신도시 개발·공항 관련 부가 가치 산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소음 문제와 군 공항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행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박수를 보낸다. 경기정 시장은 이날 "아직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무안 통합공항을 호남 관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힘을 내겠다"고 말했으며, 전남도 관계자도 "공항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의 미래를 놓고 만난 자리였다. 첫 만남은 만족치 못했다지만 3단체장은 곧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

휴가철 고속도로 사고 급증 예방책 시급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광주·전남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총 32건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2020년 9건의 사고로 사망 1명, 부상자 20명이 발생했으며 2023년은 6건(부상자 1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전남은 2020년 15건 사고에 부상자가 37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건(부상자 55명)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도 휴가철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6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8명, 203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사고는 632건에서 896건으로 41.8%, 사망자와 부상자도 1463명에서 2058명으로 40.6% 급증했다.

이 같은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는 대부분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와 관련된 법규 위반, 과도한 '윤전 보조 기능' 의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법규위반 별로 분석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75% (24건), '안전거리 미확보' (4건)가 12.5%를 차지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두 위반 사례가 전체 90%를 차지했다. 최근 자동차에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ACC 기능) 탑재가 늘면서 운전자들의 과도한 의존도 위험요인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들 설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행보조 기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ACC 기능을 사용하기 전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연일 잠 못 드는 밤이다. 열대야에 습기까지 있어 흐르는 땀으로 새벽에 잠이 깬다. 다시 잠들기까지 한 시간 이상이 걸렸다. 며칠 전에는 무심코 반팔 티셔츠만 입고 나갔더니 팔뚝이 따가웠다. 이제 햇볕을 직접 맞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도시를,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것들은 줄어들 기미조차 없다. 에어컨은 더 들 수밖에 없고 자동차, 아스팔트, 아파트 등은 계속 녹지 공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이다. 대환재, 대홍수, 대폭설, 거대 태풍 등으로 매년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금도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굴뚝산업 탓에 부를 쌓은 선진국보다 재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의 인명·재산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날씨는 뜨거운데 현실은 열 받는 일투성이다. 물가는 이제 만 원 짜리 한 장으로 점심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개선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은 미분양이나 마이너스피 등으로 몸살인데, 수도권에서는 수십억의 시

세 차익을 벌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이어진다. 소멸 위기에 있는데도 지방은 힘을 모을 줄 모른다. 전남 국립 의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등의 해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부 몇 사람의 아집으로 팍막혀 있다. 아무래도 비정상이다.

각 세대의 불안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불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세대에서 정부의 위기·위험 관리 능력을 불신하고, 빈부 격차의 심화를 느끼며,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정책 등을 계속하고 있다. 과정은 불투명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왜'라는 의문호란이 남는다.

이 여름은 이제 시작이다. 더 뜨거운 날들이 아직 남아 있다. 시원한 소식은 오로지 파리올림픽에서만 들어야 하는 것인지. 정치든, 경제든, 지역에서도 두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기본 좋은 소식 하나 들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찌는 더위에 더 찌증나지 않게. /유현성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